전예주

저는 가구의 기능을 넘어 그 역할에 주목합니다.

일상 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면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생각하곤 하는데 생각을 끝내면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이 납니다.

이때 가구의 앉고, 눕는 기능을 넘어 기댈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는 역할에 주목합니다.

가구가 저에게 그랬듯 다른 이들에게도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Jeon Yeju  
I'm attention to the role beyond the function of furniture.

In our life, when we have difficulties, we sit in chair or lie in bed and think. After thinking, we get energy to live.

At this moment, I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furniture, giving hug beyond the function of sitting and lying.

As furniture did to me, I want to design furniture that support for others.

[yeahjj08@naver.com](mailto:yeahjj08@naver.com)

[www.behance.net/yeju\_j](https://www.behance.net/yeju_j)

@yeju\_j\_furniture